

프랑스 EMS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Étienne) 교환학생 후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정재욱

2019년 봄학기에 프랑스 EMSE로 교환학생을 다녀오게 된 산업공학과 정재욱입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며 다른 학생들의 후기를 보며 도움이 되었던 기억을 떠올려 저도 다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후기를 작성하겠습니다.

1. 출국 전 준비

우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에서 교환학생 지원으로 선발된 것과, EMSE에서 선발된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입학지원서를 별개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학지원서 관련 부분은 EMSE에서 근무중이신 한우석 교수님께서 메일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입학지원서 작성시 교육과정과 수강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프랑스 입국 후 학교에서 한번 더 수정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서류 처리 속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입학 허가서가 나오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총 3주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비자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주거보조금인 CAF라는 제도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기숙사 월세 522유로 중 매달 230유로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CAF 신청을 위한 서류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증 번역을 한국에서 해가는 방법과 프랑스 도착 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이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해갔습니다. 서류를 준비한 후 출국하면 인터넷 신청 후 우편을 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숙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신청은 입학 허가서에 기재 되어있는 Maison des élèves 사이트 링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의 퀄리티에 따라 몇 가지 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는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편한 방에서 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월세 522유로의 방을 신청하였습니다.

교환학생 준비물을 챙기는 것에 대해 기억을 되짚어보면 저는 공유기와 소형 전기밥솥을 챙기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학교 기숙사에는 랜선만 있고 와이파이가 없어 공유기가 없으면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전기밥솥은 가져갈지 말지 고민했었는데 없었으면 못 살았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2. 출국 직후

우선, 프랑스 은행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주요 이유는 주거보조금 CAF를 받기 위해서인데, 은행 지점은 크게 상관없지만 여러 번 방문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한우석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기숙사 근처 societe generale에서 진행하였습니다. EMSE는 약간 시골 쪽에 위치하여 은행원분들도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는 못해 힘들었지만 구글 번역기와 함께라면 업무 진행은 가능했습니다. 휴대전화는 통신사에 따라 선택지가 있지만, Free mobile 통신사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이용하였습니다. 제가 이용한 요금제는 1달 인터넷 50기가에 9유로였습니다. 처음에 시내 ATM같은 기계에서 발급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남은 데이터 용량을 확인하거나 사용 기간을 한 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는 학교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서 하게 되었는데 구글에 'Maison des eleves'를 검색하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기숙사 사무실에서 입주 시 해야할 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며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에 방문하여 여쭙어보면 잘 가르쳐주십니다.

3. 생활

기숙사에서 우측으로 도보 5분정도 이동하면 우리나라의 소형 마트와 비슷한 Carrefour와 은행, 빵집, 과일 가게 등이 있습니다. 식당 물가는 상당히 비싸지만 마트와 과일가게의 물가는 싼 편이여서 저는 대부분의 식사 재료를 이 곳에서 구매했습니다.

학교 건물이 약간씩 떨어져서 위치하는데, 건물에 따라 다르지만 도보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는 길에는 내리막이지만 기숙사로 돌아올 때에는 오르막이라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등교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교통권은 버스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트램 정류장에 위치한 티켓 판매기를 이용해서 10회권을 한 번에 구매하거나 가까운 기차역인 Chateaucieux역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 또한 트램 정류장에 위치한 티켓 판매기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10회권과 교통카드는 모두 1회에 1유로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버스는 M4, M6인데 Moovizy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시간표와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등교할 때 주로 사용하는 버스는 M6이며 M4 버스를 타면 기차역으로 가거나 시내 중심부로 갈 수 있습니다. 시내 중심부에는 아시안 마트와 대형마트 Auction을 포함한 여러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행사가 자주 열리는데, 기숙사 전산에 등록된 메일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기숙사의 공용 주방에서 다른 학생들을 만나 같이 요리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교환학생을 통해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오시는 분들 중 유럽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시간표 관련 내

용은 후에 설명하겠지만 수업이 없는 날짜들을 잘 모아서 근교를 다녀오거나, 중간 중간에 있는 1주일 방학 혹은 부활절 방학에 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제네바나 파리, 혹은 프랑스 남부 도시들에 가는 데에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으므로 알뜰하게 계획하여 최대한 많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월 말에 프랑스에 도착하였는데, 2월 말의 날씨는 한국보다 프랑스가 따뜻했지만 이 날씨가 4월까지 지속되어 4월까지도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생테티엔의 지리 특성상 근처 도시인 리옹보다 고도가 높아 온도가 조금 더 낮았습니다. 리옹에는 비가 올 때에 생테티엔에는 눈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4월 초부터 서머타임이 적용되었는데 제가 귀국할 때 까지 해가 22시 경에 지는 상황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4. 수업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한국과 다르고 학교별로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그 중 EMSE는 그랑제꼴이라는 형태의 교육과정을 따르는 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학사 4학년 때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EMSE 기준으로는 ICM 과정의 2학년으로 배정받았습니다. 한 학기 단위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한국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EMSE는 1년 단위로 시간표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시간표를 받아 보면 1년의 과정 중 특정 날짜 특정 시간대에 어떤 과목의 수업이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1주 단위로 같은 수업이 반복되는 서울대학교와 달리 특정 과목이 화요일에 있다가, 금요일에도 있다가 하는 식으로 규칙적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불규칙성이 섞여 있습니다. 이중 수업을 희망하는 과목을 골라 수강하면 됩니다. 학기 별 Syllabus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mse.fr/DF/en/index.html>

제가 수강하려고 했던 과목들은 영어로 개설되는 과목들 중 Toolbox1의 International management, Toolbox 2의 International finance, 산업공학과 전공과 관련된 Defi의 Manufacturing이었는데 이 중 Manufactring 과목은 프랑스 입국 후에 변경되어 English 과목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수업과 다르게 대부분의 과목이 조별 활동 혹은 교수님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과목마다 차이는 있지만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여러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강의식 수업보다는 토론식 수업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느낌이었고 색다른 형태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 느낀 점

학사과정 중 교환학생은 다른 시기에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르고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여 공대 협정교 교환학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한국에서 자취를 하는 것과 교환학생을 하며 생활해보는 것은 많이 달랐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학업적인 면에서 외국어 능력을 성장시키기에도 좋은 기회였고 외국어를 두려워하는 성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다른 분위기에서 능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경험해보는 것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추가로 대학원 과정에서 유학을 고민중이라면 학사과정 교환학생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생활의 낭만이라는 유럽여행 또한 곁들일 수 있어 환상적이었습니다. 만약, 교환학생 지원을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꼭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관계자 분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타지 생활을 도와주신 EMSE의 한우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